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¹⁾를 중심으로*

최 상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정 태 연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상적인 인고사례를 분석한 연구 1, 한국전래동화를 분석한 연구 2, 그리고 가상적 시나리오를 이용한 연구 3을 통해서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1과 2의 결과에서 인고적 행위는 의도적-비의도적 차원과 자기-타인지향 차원에서 서로 달랐다. 그러나,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인고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3의 4가지 인고유형(정성-인고, 노력-인고, 순명-인고와 과실-인고)에서 평가자들은 인고가 보상을 가져오며 과실을 상계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비인고보다는 인고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더 정당하고 가치 있으며, 인고가 비인고보다 전반적으로 더 의의있는 행동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인고여부에 따른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지각은 인고맥락에 따라 달랐다. 비인고보다는 인고조건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가 더 부당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이 때 평가자들은 당사자를 심정적으로 더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인고, 보상기대, 과실상계, 인고유형, 인고문화.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0-005-C00012).

1) 상계(相計)란 우리말로 "에끼다"에 해당되는 한자어로 주고 받을 물건이나 일 따위의 셈을 서로 비기어 없앤다는 뜻이다(남영신 편, 1998).

20세기의 한국사회는 일제의 강점과 동족간 전쟁 등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 근대사에 새 장을 열 만큼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과정 속에서 유입된 서구사상은 전통적으로 소수만이 누려온 권리와 혜택을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이념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도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서구의 개인 중심적인 문화에 노출되면서 예전처럼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절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신에, 개인의 욕구충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음으로써 한국인들은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최대한 만족시키고자 하는 쾌락지향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서 나타난 물질지상주의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한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가령,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질지향적 가치관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라이다(박재홍, 1995; 정철희, 1997; Inglehart, 1997). 또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그 방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부정행위는 그 빈도와 심각성에서 위험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전통적 삶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욕구의 즉각적 충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보다는 절제와 금욕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자기수련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사도나 도제의 수련 첫 단계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었다. 청소하기, 물을 길러 밥 짓기 등 온갖 굵은 일을 하며 고통을 겪는 것이 수련의 시작이며 자기성장의 발판이었다. 한국전통사상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불교도 “어려움을 참고 견뎌다”는 인고(忍苦)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불교가 쾌락이나 방탕의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금욕을 기본 교리로 삼는 것은 불교가 인고

를 수도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자들의 고행(苦行), 산상기도나 새벽기도 모두 인고의 다양한 현상들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행동의 결과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가져온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가치판단의 중심으로 삼았다. 한국인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나 기나긴 가난과 쓰라린 좌절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을 찬미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식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한결같이 새벽기도를 다니는 어머니의 사랑을 존경한다. 인구(人口)에 희자(膾炙)되는 지성감천(至誠感天)이나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은 글귀 역시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인고한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가치판단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인고의 개념은 한국인의 발달관에도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효창 등(김효창, 손영미, 박정열과 최상진, 2000)은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를 문화심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아동을 어른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았으며,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갖춘다는 의미를 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들었다”와 “철없다”라는 말의 심리 및 행동분석 결과에 따르면, “철들었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철없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자기절제가 부족한 경우와 크게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철들었다”는 “어른스럽다”와 그리고 “철없다”는 “애같다”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철들었다”와 “어른스럽다”의 개념 속에 담겨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절제는 인고를 그 바탕으로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때로 자신을 억제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하기 싫거나 하기 어려운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기절제는 현재의 욕구를 억제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인고할 수 있는 능력을 아동이 앞으로 획득해야 할 특성이고 어른이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에게 있어서 인고는 개인의 잘못이나

과실에 대한 사과 혹은 사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문화의 주된 특징으로 이성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들 수 있다(예로, 나은영과 민경환, 199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실이나 잘못에 대한 서구의 법적인 형벌은 논리적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할 것이다. 반면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한국인은 서양인들에 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체계보다는 정(情)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예로, 최상진, 2000). 또한,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상대방의 심정(心情)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동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최상진,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법적 형벌체계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합리성과 객관성에 근거하지만, 그러한 법적 처벌에 대한 일반 한국인의 판단은 정서적인 측면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정서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과실 책임자의 인고행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편안하게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범법행위로 인해 가족이나 자신이 심적 및 물질적으로 고생하는 재소자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더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인고의 정념(情念)은 한국인의 삶 속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하나의 보편적 개념으로서, 그들의 가치판단체계는 인고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한 경험적인 연구에서처럼(정태연과 한광희, 2001), 비록 오늘날 한국인들의 행동이 물질 지향적이고 쾌락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인고의 가치를 중시하는 판단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판단체계는 여러 사회적 현상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가령, 인고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접함으로써 기억하고 있는 사례들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전래동화들에서, 그리고 실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잘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인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해 보고자

했다.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인고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 및 그러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인고의 심리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고의 사례들을 기술하고 각 사례들을 몇몇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우리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전래동화의 내용과 주제를 인고와 관련하여 몇몇 차원에서 평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고관련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학생들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인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1 : 개인적 경험의 분석 방법

참가자와 측정치

연구 1에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6명(남자: 13명, 여자: 23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1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에 따른 보상이나 가산점을 받지 않았다. 인고와 관련된 모든 측정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알고 있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고의 사례들을 자유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기술한 각 인고 사례들을 고통의 발생원인과 관련해서 의도적 대비 의도적 차원, 인고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자기지향 대 타인지향 차원에서 이분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각 인고사례에서 인고 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기술하였는데, 연구자들은 각 기술문을 읽고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여 긍정적 대 부정적 범주로 분류하였다.

참가자들이 설문문 시작하기 전에 이들에게 한 예를 제시하였다. 즉, “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노는 것을 억제하고 공부하는 경우”를 인고의 한 예로 생각한다면 이 내용을 인고사례를 묻는 칸에 기술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때 이 학생이 자발적

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의도적 대 비의도적 차원을 묻는 칸에 “의도적”이라고 적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적 특성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비의도적”이라고 적는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지향”, 부모나 교사 등 자신 이외의 사람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타인지향”을 자기지향 대 타인지향을 묻는 칸에 기입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공부한 결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를 결과를 묻는 칸에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인고사례에 대한 3가지 판단차원을 행동의 동기적 측면과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행동의 에너지, 방향성과 목표상태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를 인고행동과 관련시켜 볼 때, 동기의 에너지는 인고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동기의 방향성은 인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동기의 목표상태는 인고의 결과가 어떠한지와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3가지 차원은 지금까지 다루어진 여러 심리학적 현상들 가령, 귀인, 이타행동, 행동 이후의 정서적 경험 등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차원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이 3차원을 사용하였다.

결과와 논의

참가자들이 기술한 인고사례의 총 수는 340개였으며, 이 중에서 26개(전체의 7.6%)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가차원에서 무응답(5.5%)이 있거나 두 범주 모두(예를 들면, 의도적이면서 또한 비의도적)에 표시된 사례들이다(2.1%). 먼저, 인고사례들에 대한 각 평가차원에서의 평가결과를 보면, 의도적-비의도적 차원에서 의도적 반응 208개(61.2%)와 비의도적 반응 131개(38.5%), 자기-타인지향 차원에서 자기지향 223개(65.6%)와 타인지향 108개(31.8%),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원에서 긍정적 285개(83.8%)와 부정적 40개(11.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두드러진 점은 의도적-비의도적 및 자기-타인지향 차원에 비해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원에서는 범주간의 차이가 심해 부정적 결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고사례들을 3개의 평가차원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나타났다. 먼저, 인고사례들을 3개의 평가차원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차원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4개의 유형별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반응 3개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결과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차원에서 동일한 두 유형을 서로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결과의 빈도가 긍정적인 결과의 빈도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도적-자기지향 차원에서

표 1. 3가지 평가차원에 근거한 8개의 유형별로 나타난 인고사례들의 빈도와 백분율

의도성	의도적				비의도적			
	자기지향		타인지향		자기지향		타인지향	
지향성	자기지향		타인지향		자기지향		타인지향	
결과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빈도	141	9	38	6	51	12	45	12
백분율	41.4%	2.7%	11.2%	1.8%	15.0%	3.5%	13.3%	3.5%

주: 이 표에 제시된 총 백분율은 무응답 7.6%를 제외한 92.4%임.

표 2. 2개 차원에서 분류한 8개의 유형별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반응 예들

유형	반응 예들
의도적 /자기지향	살을 빼기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참고 절제하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공부하기 수업시간에 배고픔 참기
의도적 /타인지향	부모의 자식을 위한 희생(가령, 백일기도, 저축 등) 이성친구에게 선물을 해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기 병든 시어머니를 위해 사회생활을 줄여가며 간병하는 며느리
비의도적/자기지향	실업자 신세로 있다가 취업하기 자신의 잘못으로 놀림이나 따돌림 받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경우 군대에서 어려움을 참아야만 하는 경우
비의도적/타인지향	양심수의 수감생활 부모의 자식을 위한 희생(가령,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어야만 할 때) 상황 때문에 헤어져야 할 때 상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슬픔을 참기

긍정적 결과의 빈도는 141인 반면 부정적 결과의 빈도는 9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도 인고가 긍정적 결과에 비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참가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결국,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인고사례들을 의도적-자기지향, 의도적-타인지향, 비의도적-자기지향 그리고 비의도적-타인지향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 2 : 전래동화의 분석 방법

참가자와 측정치

연구 2에서는 한국전래동화에 나오는 인고의 내용을 연구 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97명(남자: 36명, 여자: 61명)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에 따른 보상

이나 가산점을 받지 않았다. 분석할 한국전래동화를 선정하기 위해서 5개의 출판사²⁾가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전래동화전집을 이용하였다. 이 전집들은 32권에서부터 40권까지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실린 총 동화의 수는 85가지였다. 우리는 이 중에서 3번 이상 중복되어 실린 20가지 동화³⁾를 선정하였다. 평정을 위해 작성된 설문지에는 각 동화의 제목, 그 동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특정 평가대상자, 그리고 이 사람이 겪는 고통의 가장 타당해 보이는 원인 1-2개를 미리 제시하였다.⁴⁾ 참가자들은 각 동화

2) 한국브르너출판사, 한국뉴턴출판사, 한국꼬꼬마출판사, 한국학원출판사 및 한국듀이출판사 등

3) 이 동화들은 용고집전, 좁쌀 한 톨, 우렁이 색시, 자린고비, 선비와 까치, 콩쥐팥쥐, 소가 된 게으름뱅이, 효녀 심청, 의좋은 형제, 장화홍련전, 선녀와 나뭇꾼, 해님과 달님, 흥부와 놀부, 흑부리 영감, 토끼전,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금도끼 은도끼, 견우와 직녀, 흥길동전, 도깨비 방망이 등이었다.

4) 예를 들면,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서 이 게으름뱅이가 겪은 고통으로 소가 되어 매우 고생한 것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는 게으름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흥부와 놀부”

표 3. 3가지 평가차원에 근거한 8개의 유형별로 나타난 인고사례들의 빈도와 백분율

의도성	의도적				비의도적			
	자기지향		타인지향		자기지향		타인지향	
지향성	자기지향	타인지향	자기지향	타인지향	자기지향	타인지향	자기지향	타인지향
결과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빈도	363	123	291	28	569	65	453	39
백분율	18.8%	6.3%	15.0%	1.4%	29.4%	3.3%	23.4%	1.9%

주: 이 표에 제시된 총 백분율은 무응답 0.5%를 제외한 99.5%임.

에 등장하는 특정 평가대상자가 겪는 고통을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도적·비의도적, 자기지향·타인지향, 그리고 긍정적 결과·부정적 차원 각각에서 이분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각 차원에서의 전체 평가수는 평가자수(97) × 동화수(20)로 1,940개였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이 각 동화를 평가하기 전에 동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참가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결과와 논의

각 평가차원에서의 반응유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적·비의도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린고비”의 주인공 행동을 의도적으로 평가하여 (의도적: 93명, 96.4%, 비의도적: 3명, 2.6%) 평가자들 간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으며, “선비와 까치”⁶⁾에서

선비의 행동은 이 차원에서 가장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48명, 49.5%). 자기·타인지향 차원에서도 “자린고비”에서 93명(96.4%)이 자기지향으로 평가하여 평가자들 간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반면, “도깨비 방망이”⁷⁾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불분명했다(자기지향: 46명, 47.4%, 타인지향: 49명, 50.5%).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원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콩쥐팍쥐”에서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견우와 직녀”⁸⁾에서는 46명(47.4%)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49명(50.5%)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자들 간 일치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 반응을 각 평가차원으로 분류하여 그 빈도를 살펴봄으로써 자극으로 사용된 동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의도적·비의도적 차원에서 의도적 반응은 806개(41.5%), 비의도적 반응은 1,126개(58.0%), 그리고 무응답 8개(0.4%)로 나타났다. 자기·타인지향 차원에서 자기지향 1,121개(57.8%), 타인지향 811개(41.8%), 그리고 무응답 8개(0.4%)였다.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원에서 긍정적 결과 1,676개(86.4%), 부정적 결과 255개(13.1%), 그리고 무응답 9개(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 결과는 연구 1에서처럼

- 에서 흥부가 겪은 고통으로 빈곤한 삶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그 원인으로 가난과 흥부의 무능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각 동화의 내용에 기초하여 특정 등장인물이 겪는 고통과 그 원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0개의 동화마다 등장인물도 다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종류와 원인도 일반적으로 다르다.
- 한 구두쇠가 근검하고 절약하여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 선비가 뱀에 쫓기는 까치를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이 선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까치의 보은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

- 가난하지만 착한 한 마을사람이 우연히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되어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를 본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자기도 도깨비 방망이를 얻으려고 하다가 화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
- 견우와 직녀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천상에서 쫓겨나 서로 이별하게 되는데, 이 둘간의 애틋한 사랑에 감탄한 까마귀들이 칠월칠석날 다리(오작교)를 놓아 둘을 만나게 해 준다는 이야기.

인고사례들이 의도적·비의도적 차원과 자기·타인지향 차원에 따라 다르지만,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원에서는 인고가 거의 대부분 긍정적 결과를 수반함을 의미한다.

동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를 3가지 차원에 근거한 8개의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의도성과 지향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의 빈도가 부정적인 결과의 빈도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연구 1에서처럼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도 인고가 상당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참가자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자기지향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의 빈도가 123회(6.3%)로 다른 유형의 부정적 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크게 기여한 동화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⁹⁾(21회, 21.6%), “선녀와 나뭇꾼”¹⁰⁾(41회, 42.3%), “견우와 직녀”(49회, 50.5%) 등이었다.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이 연구자의 지시와는 달리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이 자신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겪는 고통 뒤에 수반하는 결과가 아닌 고통 그 자체를 긍정적·부정적 결과차원에서 평가했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참가자들간에 고통 뒤에 수반하는 결과를 보는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견우와 직녀는 자신들의 과오로 직면한 이별의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오작교를 건너 일 년에 한번씩 만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이별의 고통이 수반한 만남에 평가의 초점을 두면 인고의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일 년에 한 번의 만남이 이별의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불충분하여 궁극적으로 인고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2의 전반적인 결과는 연구 1에서처럼 인고사례

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러한 인고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연구 3 :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

연구 1과 연구 2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인고가 부정적 결과보다는 긍정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인고사례들을 의도적·비의도적 차원과 자기·타인지향 차원에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 3에서는 먼저, 인고사례들을 의도적·비의도적 차원, 자기·타인지향 차원 그리고 고통에 대처하는 행동의 특성으로 능동적·수동적 차원과 직접적·간접적 차원 등 총 4개 차원의 조합으로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직접적·간접적 차원은 고통에 대처하는 행동이 고통의 원인을 해소하거나 목표상태에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 논리적으로 산출된 이 16가지 유형 중에서 실제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유형들을 인고분류의 몇몇 차원 특히, 자기·타인지향차원에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인고사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¹⁾ 그것이 바로 정성-인고 유형, 노력-인고

9) 한 게으름뱅이가 더 편하기 위해 소가 되었다가 실컷 고생한 다음 자신의 게으름을 반성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10) 나뭇꾼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자 사슴이 나뭇꾼에게 선녀를 아내로 얻도록 도와준다. 그 후 선녀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자, 사슴이 나무꾼을 다시 도와 선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

11) 16개의 유형 중에서, 먼저 의도적으로 인고를 발생하면서 수동적으로 고통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의도적·자기나 타인지향·수동적·직접적이거나 간접적 등 4개의 인고유형을 제외하였다. 그 다음, 자기·타인지향 차원에 상관없이 의도적·능동적·직접적 인고유형을 노력-인고, 의도적·능동적·간접적 인고유형을 정성-인고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비의도적 인고의 경우는 먼저 인고발생의 원인을 고려하였다. 외적 상황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과실과 같이 그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는지를 구분하였다. 그 다음, 자기·타인지향 차원에 상관없이 비의도적(외적 상황에 의한 고통발생)·수동적·간접적 인고유형을 순명-인고라 칭하였다. 이때,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고통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 유형은 제외하였다. 또한, 앞서처럼, 자기·타인지향 차원에 상관없이 비의도적(외적 상황의 의한 고통발생)·능동적·직접적 인고유형을 노력-인고, 비의도적(외적 상황에 의한 고통발생)·능동적·간접적 인고유형을 정성-인고라고 칭하

유형, 순명(順命)-인고 유형 그리고 과실-인고 유형이다. 각각의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성-인고 유형은 고통의 발생이 의도적이거나 상황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능동적으로 인고하지만, 이 당사자의 인고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어머니가 하는 새벽기도, 고 3 자식과 함께 밤잠을 안자는 어머니, 사업하는 사람의 고사지내기, 공부 못하는 아이의 밤새우기,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발하기, 제사 지낼 때 찻물 기르기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당사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목표달성에 나름대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할 만큼 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식의 판단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기위안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인고를 통해서 당사자는 지성감천(至誠感天)에서처럼 “정성을 봐서라도”,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동정심 때문이라도”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노력-인고 유형은 고통의 발생이 의도적이거나 상황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경우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유형은 스스로 만든 인고해야 할 상황에서(가령,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고자 할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고통이 주어지는 상황에서(가령, 가난) 인고 당사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이다. 이 때 인고는 곧 노력하는 마음으로서, 한국인은 고진감래(苦盡甘來)에서와 같이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러한 노

였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고통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경우의 인고행위는 다른 분류차원에 상관없이 과실-인고라 명명하였다.

력을 찬미한다. 대중매체에서 소개하는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순명-인고 유형은 고통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고 단지 그 고통을 수동적으로 감내(堪耐)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얻는 경우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고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없이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고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또한, 당사자가 특정 보상을 얻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 역시 이 사람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고통을 단지 감내(堪耐)하기만 해도 그것이 어떤 보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과실-인고 유형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인고하는 경우이다. 이 때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고를 통해 “값는다” 혹은 “죄값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가령, 사회적으로 큰 문제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용징에 대해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는 입장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과실 뒤의 인고를 동정하는 것은 인고한 사람의 심정(心情)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고한 사람의 심정을 잘 고려하지 못해서 인고에 동정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너무하다”, “억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논리와는 매우 다르다.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하면 되었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등의 표현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인고한 것으로 잘못을 값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앞에서 살펴본 인고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처음의 3가지 유형 즉, 정성-인고, 노력-인고 및 순명-인고 유형은 인고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및 당

위성과 관련된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 3에서는 인고 보상수반심정논리(忍苦報償隨伴心情論理) 즉, 한국인들은 인고를 겪으면 그것이 어떤 보상을 수반한다는 심정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마지막의 과실-인고 맥락에서는 인고가 과실에 대한 책임의 변제와 관련된다. 이에 근거하여 인고과실상계심정논리(忍苦過失相計心情論理)를 설정하여 한국인들은 인고를 겪으면 개인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총 262명(남 164명, 여 9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18세에서 31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21.84세(표준편차 2.51세)였다. 이들의 참가는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7명의 학생들에게는 실험 참가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었다.

실험자료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료로 인고의 4가지 유형과 관련된 8개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각 인고 유형에서 인고조건과 비인고조건에 해당되는 2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한 예로서, 정성-인고 유형에서 인고조건과 비인고조건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인고조건>

이 학생은 합격자의 수가 미리 제한되어 있는 어떤 시험을 치르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학생이 지금까지 연습시험에서 얻은 석차는 합격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하는 수준이다. 이 학생은 하루에 평균 12시간 공부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도 공부는 하지 않지만 마

음은 온통 시험에 가 있다.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늦게까지 앉아 있다. 이 학생의 부모님도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들은 자식의 합격을 위해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나 불공 등을 드린지 오래다. 또한, 어머니는 이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잠자리에 절대 먼저 들지 않는다.

<비인고조건>

이 학생은 합격자의 수가 미리 제한되어 있는 어떤 시험을 치르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학생이 지금까지 모의시험에서 얻은 석차는 합격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하는 수준이다. 이 학생은 하루에 평균 12시간 공부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시험에 전혀 마음쓰지 않는다. 잠을 자는 시간 역시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전혀 시험에 개입치 않는다. 또한, 이 학생의 부모님은 “공부는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전혀 없다. 그들이 새벽기도를 한다거나 밤잠을 안자면서 자식의 귀가를 기다리는 일은 전혀 없다.

결국, 정성-인고 유형에서 인고조건은 “학생과 부모가 공부하는 것 이외의 측면에서 정성을 쏟는 경우”이며 비인고조건은 “공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외 정성관련 행동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노력-인고 유형은 “초등학교 농구부”와 관련해서 인고조건은 “시험을 위해 열악한 상황에서 눈물겹게 노력하는” 내용이며 비인고조건은 “최상의 여건 속에서 선수들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¹²⁾ 순명-인고 유형은 “한 정치후보자가 여러

12) 실제 본 연구자들은 노력-인고유형에서 인고로서의 노력의 유무보다는 노력과 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지각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래서, 인고조건에서는 노력을 그리고 비인고조건에서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노력유무로 조작된 인고여부는 종속측정치에서 매우 당연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과 대신에 노력과 능력을 강조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함축적인 의미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이러한 시도가 결국에는 노력-인고유형에서 인고여부를 비교하는데 큰 제한점이 되었는데, 이 점은 추후에 더 논의하였다.

선거에서 낙선한” 내용으로 인고조건은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심리적 및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내용이며 비인고조건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실-인고 유형은 “사형수와 관련된” 맥락으로 인고조건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족들도 심리적 및 물질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비인고조건은 “사형수와 그 가족들 모두 여러모로 편안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다.

종속측정치

8개의 시나리오는 무선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10개의 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측정하였다. 먼저, 긍정적 결과(4개의 인고유형 순서별로 합격, 우수, 당선 및 감형)시 그 가치와 정당성을 2문항(예로, “이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이것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와 “이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합격은 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얼마나 적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까?”), 긍정적 결과시 인고여부의 의의를 2문항(예로, “이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공부 이외에 이 학생과 그 부모가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와 “이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당신은 이 학생과 그 부모를 얼마나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긍정적 결과 가능성을 1문항(예로, “이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별로 부정적 결과(4개의 인고관련 맥락에서 순서별로 불합격, 패배, 낙선 및 비감형)시 그 정당성을 측정한 1문항(“이 학생이 시험에 실패할 경우, 실패가 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얼마나 적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까?”)을 역코딩하여 그 부당성을, 부정적 결과시 인고여부의 의의를 2문항(예로, “이 학생이 시험에 실패할 경우, 공부 이외에 이 학생과 그 부모가 보인 행동이 얼마나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와 “이 학생이 시험에 실패할 경우,

당신은 이 학생과 그의 부모를 얼마나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정적 결과시 그 결과에 대한 심정적 이해를 2문항(예로, “이 학생이 시험에 실패할 경우, 이 학생과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까?”와 “이 학생이 시험에 실패할 경우, 당신은 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연민을 느낄 것 같습니까?”)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각 참가자의 경제적 수준과 고생한 정도를 각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Likert형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은, 7점: 매우 그러한) 상에서 이루어졌다.

절차

자료수집은 심리학 관련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응답은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인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 준 후, 실시할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먼저, 설문지의 앞부분에는 참가자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8개의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각 시나리오를 주의 깊게 읽어서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시나리오와 관련된 질문을 주어진 내용에만 근거해서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설문지의 뒷부분에는 참가자들의 경제적 수준 및 고생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대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요구했다.

결과 및 논의

참가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전체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으며($M = 4.15, SD = .94$),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각각 $M = 4.09$ 와 4.26). 이들이 살면서 고생한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M = 3.52, SD = 1.34$), 남자($M = 3.71$)가 여자($M = 3.19$)보다 더 고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성-인고 유형에서 인고와 비인고조건간의 차이

변 인	긍정적 결과 관련			변 인	부정적 결과 관련		
	인고	비인고	$F_{(1, 261)}$		인고	비인고	$F_{(1, 261)}$
가치와 정당성	5.88(.82)	4.47(.91)	380.72***	부당성	5.03(1.00)	4.16(1.04)	112.38***
인고여부의 의의	4.39(1.23)	4.43(1.15)	.09	인고여부의 의의	3.71(1.13)	3.60(1.09)	1.18
가능성	4.60(1.07)	4.69(.98)	1.07	심정적 이해	5.79(.83)	3.45(.97)	848.10***

주. 모든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는 표준편차.
*** $p < .001$

$F_{1, 260} = 9.28, p < .01$. 또한, 경제수준과 고생정도는 서로 $r = -.29(p < .001)$ 의 부적상관이 있었지만, 이 두 변인은 인고유형별로 측정된 종속변인들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각 인고유형에서 인고여부(인고 대 비인고)와 성별(남자 대 여자)에 따라 종속측정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혼합설계(mixed design)의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인고유형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인고여부에 따라 종속측정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인고여부에 따른 피험자 내 일원변량분석(within-subject one-way 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정성-인고 유형: 먼저, 정성-인고 유형과 관련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긍정적 결과가 비인고조건에서보다 인고조건에서 더 가치있고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380.72, p < .001$. 그러나, 긍정적 결과시 인고행동과 비인고행동의 의의는 서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있어서도 인고여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인고조건에서 부정적 결과가 더 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112.38, p < .001$. 부정적 결과시 인고행동과 비인고행동의 의의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비인고조건에서보다는 인고조건에서 부정적 결과의 당사자를 더 심정적으로 이해하

고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848.10, p < .001$.

결국, 정성-인고 유형에서 긍정적 결과의 가치와 정당성 및 부정적 결과시 그 부당성과 당사자에 대한 심정적 공감은 인고조건에서 더 높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인고행동과 비인고행동간의 의의 그리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의 지각에서는 인고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없는 가능한 원인으로 참가자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와 비슷한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인고를 경험했을 수 있다. 즉, 이들은 대학입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가족이 인고했지만, 이러한 인고가 실제 자신들의 수행성적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합격과 시험에서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인고의 무의미성을 경험했을 수 있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추측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노력-인고 유형: 노력-인고 유형과 관련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종속측정치에 있어서 인고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긍정적 결과시 인고조건에서 그러한 결과가 더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_{1, 261} = 160.77, p < .001$. 또한, 긍정적 결과시 인고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었다, $F_{1, 261} = 848.10, p < .001$.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에서도 인고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인고

표 5. 노력-인고 유형에서 인고와 비인고조건간의 차이

변 인	긍정적 결과 관련			변 인	부정적 결과 관련		
	인고	비인고	$F_{(1, 261)}$		인고	비인고	$F_{(1, 261)}$
가치와 정당성	6.34(.66)	5.51(.95)	160.77***	부당성	4.59(1.24)	4.82(1.10)	6.03*
인고여부의 의의	6.50(.61)	5.06(1.09)	439.74***	인고여부의 의의	5.17(1.08)	4.75(1.14)	22.12***
가능성	4.23(1.31)	5.25(1.32)	78.65***	심정적 이해	5.45(1.04)	5.25(1.13)	7.48**

주. 모든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는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조건에서보다 비인고조건에서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78.65, p < .001$. 부정적 결과시 그 부당성이 비인고조건에서 더 높았지만, $F_{(1, 261)} = 6.03, p < .05$,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도 인고 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F_{(1, 261)} = 22.12, p < .001$. 마지막으로, 비인고조건보다는 인고조건에서 부정적 결과를 직면한 당사자를 심정적으로 더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7.48, p < .001$.

노력-인고 유형에서의 대부분 결과는 인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과 부정적 결과의 부당성의 측면에서는 인고조건보다 비인고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인고조건에서 강조한 능력이 인고조건과 비인고조건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오염변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노력-인고유형에서 인고여부가 행동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노력의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순명-인고유형: 순명-인고 유형에서의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종속측정치에서 인고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긍정적 결과가 비인고조건보다 인고조건에서 더 가치있고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356.09, p < .001$. 또한, 결과가 긍정적일 때 인고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_{(1, 261)} = 31.27, p < .001$. 인고조건에서 긍정적 결과가 얻어질 가능성도 더 큰 것으로 지각되었다, $F_{(1, 261)} = 14.01, p < .001$. 이와 유사하게, 부정적 결과는 인고조건에서 더 부당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F_{(1, 261)} = 33.28, p < .001$.

표 6. 순명-인고 유형에서 인고와 비인고조건간의 차이

변 인	긍정적 결과 관련			변 인	부정적 결과 관련		
	인고	비인고	$F_{(1, 261)}$		인고	비인고	$F_{(1, 261)}$
가치와 정당성	5.61(.89)	3.94(1.16)	356.09***	부당성	4.71(1.04)	4.18(1.26)	33.28***
인고여부의 의의	4.62(1.14)	4.04(1.29)	31.27***	인고여부의 의의	3.44(1.09)	3.21(1.17)	5.06*
가능성	4.11(1.21)	3.68(1.34)	14.01***	심정적 이해	5.70(.96)	2.89(1.20)	1018.79***

주. 모든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는 표준편차.
* $p < .05$. *** $p < .001$

표 7. 과실-인고 유형에서 인고와 비인고조건간의 차이

변 인	긍정적 결과 관련			변 인	부정적 결과 관련		
	인고	비인고	$F_{(1, 261)}$		인고	비인고	$F_{(1, 261)}$
가치와 정당성	5.51(.95)	3.69(1.20)	484.14***	부당성	4.82(1.10)	3.37(1.27)	240.21***
인고여부의 의의	5.06(1.09)	3.51(1.17)	299.65***	인고여부의 의의	4.75(1.14)	3.44(1.08)	224.40***
가능성	5.25(1.32)	3.38(1.36)	383.56***	심정적 이해	5.25(1.13)	3.49(1.26)	351.58***

주. 모든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는 표준편차.
*** $p < .001$

$_{261} = 33.28, p < .001$. 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시에도 인고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5.06, p < .05$. 마지막으로, 부정적 결과시 참가자들은 인고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인고한 사람을 심정적으로 더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1018.79, p < .001$.

앞서 살펴본 인고 유형에서처럼, 순명-인고 유형에서도 참가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인고가 더 의의가 있으며 특히, 부정적 결과보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의 인고가 더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그들은 인고조건에서 긍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더 부당한 것으로 그리고 당사자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인고 그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히 운명처럼 인고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인고보상심리를 잘 보여준다.

과실-인고 유형: 과실-인고 유형과 관련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종속 측정치에 대해서 인고여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비인고조건보다는 인고조건에서 긍정적 결과가 더 가치있고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484.14, p < .001$. 또한, 긍정적 결과시 인고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었으며, $F_{(1, 261)} = 299.65, p < .001$, 인고조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더 높았다. $F_{(1, 261)} = 383.56, p < .001$. 부정적 결과와 관련해서 볼 때, 인고조건에서 이러한 결

과는 더 부당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F_{(1, 261)} = 240.21, p < .001$. 또한,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도 인고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었으며, $F_{(1, 261)} = 224.40, p < .001$, 비인고조건에서보다는 인고조건에서 부정적 결과의 당사자를 심정적으로 더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 261)} = 351.58, p < .001$.

이러한 결과는 잘못에 대해서 주어지는 처벌을 어떻게 감수하느냐가 그 잘못을 변제하는데 중요하게 기능함을 보여준다. 즉, 비록 과실의 정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과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여 감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외적으로 주어지는 처벌을 감수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인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일상적인 인고사례들과 한국전래동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고사례들이 의도적-비의도적 차원과 자기-타인지향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과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인고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3에

서는 한국인들이 의도적-비의도적 차원과 인고와 관련된 행동의 특성 및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인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보상과 관련된 정성-인고, 노력-인고 및 순명-인고 유형에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인고를 가치있고 이를 통해 얻은 긍정적 결과를 더 정당하며 인고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 이것을 부당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인고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시나리오에 따라 달랐다. 가능한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가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관여할 수 있는 인고 이외의 요인을 포괄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란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현상에 대한 불완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시나리오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한 각 인고유형별 시나리오의 수는 하나였기 때문에 특정 인고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취급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3가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들은 인고보상수반심정논리(忍苦報償隨伴心情論理)를 가지고 있어서 인고가 긍정적 보상을 가져오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판단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3의 과실-인고 유형에 대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인고 과실상계심정논리(忍苦過失相計心情論理)를 가지고 있어서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해 인고를 경험한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어야 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논의하겠다.

보상과 관련된 인고 유형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는 인고가 부정적 결과보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매우 많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연구 3에서는 인고유형에 따라 인고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서로 달랐지만, 참가자들은 인고를 통해서 얻은 긍정적 결과가 인고 없이 얻은 긍정적 결과보다는 더 가치있고 당

위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인고가 비인고에 비해 더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노력-인고 맥락을 제외한 나머지 두 맥락에서 부정적 결과의 부당성도 인고조건에서 더 컸으며 당사자들을 심정적으로 더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인고행동의 보상수반을 매우 정당하고 당위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인고를 중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동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연구 3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결과에 상관없이 인고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고행동의 의의 정도는 그런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즉,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 결과를 획득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인은 행동의 결과 못지 않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과정도 중요시한다고 하겠다.

한국인이 인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성-인고 유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취맥락 이외에 한국인의 대인관계 맥락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인고의 정도는 서로에 대한 마음 씩씩이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상(喪)을 당한 친구와 가깝고 친한 친구일수록 상가에서 밤을 지새며 오랫동안 남아 있다. 상을 당한 사람 역시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는가로 자신에 대한 그의 마음을 가늠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처지에 비해 매우 비싼 물건을 선물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인고 혹은 회생을 통해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써주는 마음이 매우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결국, 대인관계에서 정성과 관련된 인고는 마음에 근거한 모델로서 “진심으로 남이 하기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고가 한국인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력-인고 유형에서도 인고행동이 비인고행동보다 더 의의가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노력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까? 그것은 아마도 한국인들이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뎌왔다는 것, 즉 참고 견딘 그 마음을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노력이 타인을 위한 것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가령, 한국전래동화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억울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소위 사회적인 선을 추구하는 경우의 이야기는 많지만, 이 사람이 주어진 능력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했고 그래서 훌륭하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일상적 상황에서 인고나 노력 없이 성공한 능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것 같다.

수명-인고 유형에서 인고가 긍정적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한국인의 기대 속에서는 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인들이 대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외현적으로는 대립되는 현상들도 동일한 근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서로 순환적으로 드러난다는 생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가령,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복(福)과 화(禍)는 서로 가깝게 존재하고 있어 전화위복(轉禍爲福)하고 복자화지문(福者禍之門)이라 하여 가까이 와 있는 복을 멀리하고자 하였다(이규태, 2000).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은 미운정과 고운정이 모두 동일한 근원에서 발생하여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최봉영, 2000, pp. 81-82; 최상진, 2000, pp. 70-75). 새옹지마(塞翁之馬)나 고진감래(苦盡甘來) 등도 삶의 행(幸)과 불행(不幸)이 순환적으로 발생한다는 한국인의 인식체계를 잘 반영해 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인은 단순한 인고 뒤에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이 인고를 중요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쾌락보다는 절제와 금욕을 그리고 결과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가져온 인고적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판단체계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욕구의 절제와 통제보다는 욕구의 확대를 자극하고 조장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이면서 인고보다는 쾌락지향적 행동이 더 보편화되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물질적 및 결과중심적 가치가 팽배해지면서(김경동, 1992, pp. 310-346) 인고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훼손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고에 대한 가치체계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위 불가치적 상태나 심리적으로 허탈감 혹은 학습된 무기력(Seligman, 1975)과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서구중심적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인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원천은 물질만이 아니다(박성조, 2000). 대신에, 한국인의 마음 속에 내재해 있는 삶의 과정 중심적 가치체계가 기능하는 사회가 그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과실과 관련된 인고 유형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과실을 범한 개인이 그 과실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낸 경우 그 개인에게 과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과의 당사자를 심정적으로 더 이해하고 동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들의 과실-인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나 신상필벌(信賞必罰)과는 다른 의미로서 논리적이기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고 규범적이기보다는 개인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전래동화 중에서도 “소가 된 게으름뱅이”나 “견우와 직녀” 등이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 이처럼, 인고하는 사람에 대해 동정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인간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과실 후의 인고여부가 책임추궁이나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때로 법의 공정성과 처벌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법적인 형벌의 부여란 개인이 범한 과실의 경중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과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과실 이후의 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과실 이후의 행위가 과실에 대한 형벌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인의 판단체계에서 보면, 과실 이후의 인고여부가 이전의 과실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영향을 주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당사자 심리학(최상진, 2000; Choi, 1998)과 관련될 수 있다. 과실후 인고의 당사자가 제 3자라 하더라도 그의 인고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공감을 통해(최상진과 김기범, 1999) 그를 나와 관계된 당사자와 같은 방식으로 지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두환의 백담사 참회 사건에서처럼, 한국인들은 그가 범한 죄보다는 그가 백담사에서 겪은 고통, 심리적 괴로움 등 그의 심정을 공감함으로써, 이러한 인고를 겪었기 때문에 그만 그의 죄를 면해줄기를 원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성 관계에서 작용하는 정(情) 중심적, 사적 관계적,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상대 배려적, 심정 논리적 및 감성적 마음의 틀이 과실 당사자를 평가할 때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영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사적인 논리가 개입하게 된다(한규석, 2000).

법적 형벌은 처벌과 교화를 크게 주된 목적으로 한다(박광배, 1998, p. 271; Kapardis, 1997). 주어진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형벌이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어느 하나의 희생물 통해 나머지 하나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법이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강제적 규범이다. 따라서, 규범은 종종 각 개인의 욕구충족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가능하면 규범을 어기거나 규범의 예외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과실에 대한 공정한 법의 집행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다. 만약 과실 후에 이루어지는 인고여부가 과실에 대한 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법의 적용

에 예외적인 경우를 양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누구나 법으로부터 예외가 되고자 할 때 그 사회의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인이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혹은 교화되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박영사.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2000).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정례발표회**, 30-40.
- 나은영, 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남영신 편(1998). **훈 국어사전**. 서울: 성안당.
- 박광배(1998).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박성조(2000). 세계화 시대의 행복찾기. **중앙일보**, 11월 21일, 42면.
-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651-683.
- 이규태(2000). 한국적 행복지수. **중앙일보**, 9월 25일, 41면.
- 정철희(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 61-83.
- 정태연, 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21(1), 1-14.
- 한규석(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3.
- 최봉영(2000). **주체와 욕망**. 서울: 사계절.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

- 회지: 일반, 18(1), 1-16.
- Choi, S. C. (1998). The third-person 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pardis, A. (1997). *Psychology and law: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Freeman.

1 차원고접수일 : 2001. 5. 4

최종원고접수일 : 2001. 9. 7

Psychology of *Ingo* for Koreans: Accompaniment of rewards and Reimbursement of faults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aeyun Jung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explore psychological meanings of *ingo* (painful endurance) for Koreans. Study 1 analyzed *ingo*-related everyday behavior of Koreans and Study 2 did Korean folk tales. Analyses uncovered that *ingo* was different on both the intended-unintended and the self-other oriented dimensions. However, *ingo* was perceived to be followed by positive outcomes in most cases. In Study 3, two scenarios were constructed, one for *ingo* and the other for *non-ingo* behavior, for each of four types of *ingo*. Then 262 participants rated those eight scenarios in relation to outcomes from *ingo* and *non-ingo* behavior. Results indicated that positive outcomes from *ingo* behavior were more valuable and legitimate than those from *non-ingo* behavior. Also, participants were more sympathetic to those individuals whom negative outcomes were incurred to through *ingo* experiences. Further, higher values were assigned to *ingo* behavior per se than to *non-ingo* behavior. However, differences in possibility of accompanying positive outcome between *ingo* and *non-ingo* behavior varied as a function of *ingo*-context. All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Korean culture.

Key words : *ingo*, accompaniment of rewards, reimbursement of faults, typology of *ingo*, and *ingo*-oriented culture.